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사랑이 머무는 곳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008년 가을, 취업 준비생이었던 저는 업계 2위 광고회사에 지원했고 서류 전형을 거쳐 실무 면접, 영어 면접, 실기 시험까지 통과해 최종 임원 면접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 총 여섯 명이 남았고, 그중에서 딱 세 명만 신입 아티디렉터가 되는 거였죠. 매일 밤 온 가족이 모여 작정 예배를 드렸고 저에겐 반드시 합격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합격하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리라 마음먹었고요. 최종 면접을 마치고 몇 주가 지나 회사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불합격되었다고요.

당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잊음이 약해져 치아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치면 엄청난 통증에 놀라 잠에서 깬고 한동안 수건을 입에 물고 자야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지? 나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즈음 겨울산상집회가 열렸고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기도한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불합격한 회사로 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처럼 그 회사를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공채가 아니고서는 신입을 뽑지 않는 대기업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간청이

였으나 그만큼 간절했고 기도한 것을 믿고 실천하려 했죠. 기회를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류 전형도 통과하고 실기 시험도 통과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다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취업이 어렵다던데 저는 입사 서류를 넣었다 하면 통과되니까 취업이 쉽게만 느껴졌습니다. 불합격되고 나니 비로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고, 제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취업 준비로 괴로워하는 친구들 마음을 그제야 백 퍼센트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게 되었죠.

불합격한 후 다른 광고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아티디렉터가 아닌 카피라이터로 전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팀장님의 소개로 또 다른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 정직원 자리를 얻었고, 그곳에서 최고의 팀장님을 만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일을 배웠습니다. 카피라이터는 저에게 천직이었고, 아티디렉터에서 카피라이터로 전향한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일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불합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죠. 당장엔 불합격이 불행한 일이라고 여겼는

데, 길게 보니 불합격은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물론 그 후로도 기도한 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여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도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이월 드 목사님의 ‘결단하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심령이 뜨거워져 기도한 대로 되면 교회 신문에 간증해서 기도의 힘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떨어진 거죠. 혜택이 무척 좋은 프로젝트였고 상금 3백만 원도 저에겐 꼭 필요했었습니다. 슬펐고 실망했고 좌절했죠.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주실 테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엿그제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부터 3백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론 저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예수님의 열심

지난주 토요일, 교역자 성경읽기표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은낙하심을 입었느니라”(스8:23). 경험상 바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나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애써 외면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12시간씩이라도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지만, 또 외면하며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1부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은 ‘예수를 위해 나의 영·혼·육을 불사르면 열 고을의 왕권을 누린다.’였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해 마음속으로 우는 소리를 했다. 요즘 몸에 힘이 팔려 평소보다 식사량을 늘린 거 예수님도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교회 신문을 읽다가 총회장 목사님 꺾림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후대가 이렇게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분은 다 써서 남아져 가셨다.’라고. 나는 써서 남아질지언정 녹슬어 버리지고 싶지 않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면서 이미 닳고, 닳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 글을 보니 금식을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 3일간 12시간씩 금식을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잠시 잠깐의 금식도 하기 싫어 요리조리 피한 나의 모습과 40년 가까이 예수님을 위해 영·혼·육을 불사르고 계신 총회장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목자가 이초석 목사님이신 것과 내가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혼내지 않으시고 총회장 목사님 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남은 이틀로 승리하리라 다짐한다.

곽신애 전도사

하계산상집회 8월1일(월)~4일(목), 8일(월)~11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 간증 ::

기적의 하나님



저는 인천교회 유초등부 교사 김현숙 권사입니다.

1988년 한국예루살렘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전에 다니던 개척교회부터 교사를 해온지라 이 교회에 와서도 유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 75세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하며 교사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쓰는 주님을 무

시하는 것이다.’라는 목사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반을 총동원하면 일등도 하게 해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는 열매가 많다’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인천교회가 3주간 주일예배에 총동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도한 분들을 동암역에서 만나 대성전에 모셔다드리고는,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차에서 새신자분들을 배웅해드렸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조금 힘은 들었지만,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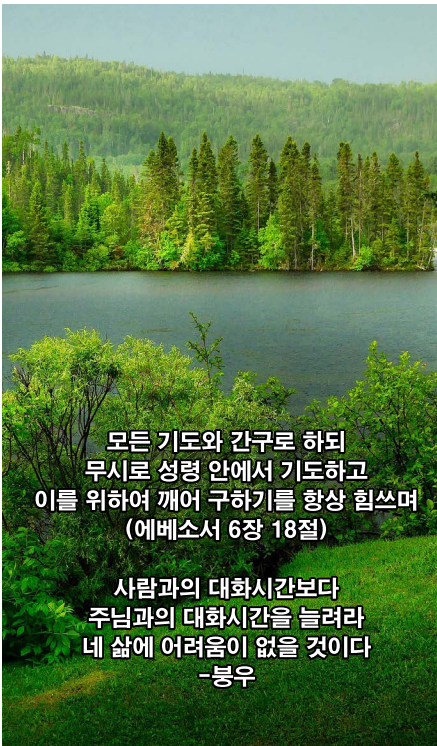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유초등부도 총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여 새신자분들을 모셔온 걸 아시죠? 그러니 우리 반 친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라고 전도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는데, 어린 새 친구가 두 명이나 오고,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출석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심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은 친구초청잔치날인데, 새 친구가 5명이나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전도할 아이가 없자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까지 가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온다, 안 온다 해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나 봅니다. 그런 저들이 저도 이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까지 저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눅1:37)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 유초등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에 부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헌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예수증심교회 김현숙 권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사람과의 대화시간보다
주님과의 대화시간을 늘려라
네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봉우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7월 10일 (제115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 컬럼

일을 해라

나는 지금 기도원에 있다. 이곳에서 7월 말에 있을 젊은이들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텐트며, 야외 카페며, 숙소를 단장하고 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몽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나는 일거리가 많음에 감사하고, 일거리가 많아서 행복하다. 또 그것이 내 젊음의 비법이다.

나는 모세를 간간히 생각한다.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큰일이 있었기에 늙을 시간마저 없었던 것이다.

그럼 아직 기력이 있는데 왜 120세에 죽었을까? 그의 일이 끝났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일을 거기서 놓았고, 죽음을 맞은 것이다.

갈렙을 보자. 그는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산간 지대였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으며, 거대하고 힘센 거인 아낙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85세 노인이 그곳을 달라는 것이다. 갈렙은 말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14:11~12). 갈렙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새삼 느낀다.

103세에도 여전히 강의를 하고 다니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노력하면 늙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해라.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인생이 피곤한 것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이에 상관 말고 꿈을 갖고 일거리를 만들어라. 일할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다.

시작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시작이 전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후원과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우리 교단에 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 믿는다. 10일이라는 너무나 촉박한 준비기간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졌을 법하다. 그러나 집회 개최를 선포하고 이에 아멘으로 화답한 교단의 주의 종들을 비

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평화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문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시도했고, 이루었고, 무엇보다 목사님부터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 외치시며 부단히 기도하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 코로나로 인해 멈

지막에 단상이 무너질 정도로 몰려드는 그 갑작한 영혼들을 보았을 것이다. 인도에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에서 우리는 동일한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였다.

지난 2002년 러시아(Russia)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집회 때 만났던 자동차 사업가 표토르 집사는 집회를 마치고 칼리닌그라드를 떠나기 전날 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어조로 목사님께 말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종을 처음 봅니다. 이번 집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6월 2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우리는 시작했고 성취했다.

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자 가로막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마치 꿈꾸는 듯한 장면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실현되었다.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꿈꾸듯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시작하고 믿고 나가니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목사님께 항상 배우며 몸에 체득된 우리의 잠재 역량이 라고 믿는다.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고 얼마나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던가. 그리고 우리는 시청광장에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나아가 세계 집회에서 무수히 경험하고 목도한 바이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행동하

춰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여름성경 학교와 청소년연합수련회가 재개되고, 하계산상집회도 진행된다. 또한 예수중심으로 세계를 하나 되게 한다는 세계 선교의 비전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2000년대 약 15년의 세계 선교를 통해 세계 각지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며 꽃을 피우는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 전파의 횡보를 다시 높이 들고 팬데믹과 전쟁, 경제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주일, 2004년 6월에 있었던 몽골(Mongolia) 울란바토르(Ulaanbaator) 2차 집회 실태를 함께 보았다. 마

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 받는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세계를 다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셔야 합니다.”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때, 우리 교단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

목사님은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하자.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신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The 24th UNITED YOUTH CAMP

중고등부 7월 25일(월)~27일(수), 청년대학부 7월 28일(목)~30일(토)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49)

우리 성령의 불을 던지러 세계로 나가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눅12:49).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무슨 불이나? 성령의 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심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 열두 명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 불은 70인의 제자에게 확산되었고, 3천 명의 제자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제가 한 일은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누구 앞에서든 저는 당당히 “나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게 하고, 회개케 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낱장작에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너무 갑급한, 건조가 잘 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잘 붙지요. 아무튼 불만 붙으면 제가 할 일은 끝입니다.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다음은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사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각색 병자들이 고침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불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잘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난 거 보셨지요?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불길에 세면 그렇게 빨리 번집니다. 성령의 불도 이처럼 번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가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불길이 세야 불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악

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24:49)고 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 과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은 불기만 하면 번지기 때문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지난주 우리는 2004년 몽골 울란바토르 집회를 영상으로 같이

이 봤습니다. 메인 스타 디움에 가득했던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집에서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라며 성령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집회가 불발되고 거의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그때 받은 불을 활활 태우고 있을까, 아니면 다 꺼져 다시 암흑 속에서 살고 있을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몽골로 가서 저들에게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봉화불을 들었고, 밖으로는 성령의 불을 땀겨 세계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을 읽을 때면 어김없이 꼭 “절입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성령의 봉화불을 들고 세계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남에게 불을 붙이려면 먼저 내가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불이 안 붙었는데 누굴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뜨거우면 옆에만 있어도 불이 옮겨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가, 아니면 식었는가를 아는 방법은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압니다. 불 가까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활활 타

면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에게 불이 옮겨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렇

다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

도만이 성령의 불을 계속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계속 들어가야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아궁이에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때는 7시간 기도합니다. 해외선교 일행인 한은택 목사가 제 호텔 방에 들어와 보니 침대에는 들어간 흔적도 없이 침대 밑에 수건 두 장이 겹쳐있고 무릎 자국만 있었다는 글을 썼지요? 지금까지 기도의 일생을 살았기에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 꺼진 항구입니다. 불 꺼진 아궁이요, 배터리 나간 핸드폰이요, 기름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하라’하신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살전5:17).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이요, 위대한 믿음의 역군들은 다 하나 같이 기도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 꺼진 항구다

둘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뭉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목사님이 심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에 가서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어 가만히 놔뒀습니다. 처음에는 장작이 벽난로에 있을 때처럼 잘 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점차 장작불이 사그라지더니 마침내 꺼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꺼진 장작을 벽난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목사님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맛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고고하게 잘할 것 같지만 작은 바람에도 불을 꺼뜨리기 쉽습니다. 함께 하면 불이 잘 탑니다. 낱장작도 불이 활활 타는 곳에 넣으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갑니다. 아직도 비대면에배를 드리시는 분들, 교회로 나오세요. 불이 사그라들기 전에,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 다시 활활 타게 하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몽골을 시작으로 다시 남미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다시 성령의 불을 던지려고 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다시 세계 복음화에 불을 땀겨려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면 전선에 나가 싸우는 군인도 있지만, 후방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후원하는 지원군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최고의 힘입니다.

우리, 다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세계로 나가시다. 그래서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대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2절에는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라는 당부입니다. 국가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쩌쩌하게 굴어서야 되겠습니까? 통이 큰 대장부가 되어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포용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이 들어갈 수가 없으나 큰 그릇에는 얼마든지 작은 그릇들을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부는 강하고 용기가 있으며 항상 여유가 넘쳐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롯은 여호와와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목초지를 확보하고 아브라함은 열악한 환경의 목초지를 차지하였지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유흥불 심판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어렵게 발견한 우물을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고 또 우물을 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에 한 번 발견하기도 힘든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발견하고 그의 지경이 넓어졌으며, 흉년 속에서도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말에 상대가 용서를 빌거나 양해를 구할 때 ‘괜찮다’는 의미로 ‘다이조부테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조부테쓰(大丈夫です)’를 직역하면 ‘대장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용서해줄 수 있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힘이 있고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생과 사랑,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한 줌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상화평 목사

:: To Be Succeeded ::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이 바닥을 치는 듯한 현실과 다른 이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소식에, 솔직히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역전되리라’는 찬양으로 응답과 확신을 주셨고, 얼마 지나고부터 영·혼·육과 환경을 치료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세 가지를 깨닫고 얻게 되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대로 찢으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밭바닥까지 내려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곤고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 반전되는 역전 드라마의 연속이다. 430년의 노예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너간 것이 그러했고, 철옹성과 같은 예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흔적도 없이 무너진 것이 그러했다.

더는 찾아갈 의원도 없을 만큼 십수 년을 혈투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한 번 손대자마자 깨끗함을 입은 이야기, 다섯 남자를 남편으로 뒀지만, 마음 둘 곳 없이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복음전도자가 된 사건, 그뿐인가! 감옥이 무너져 내려 죄수들이 도망가자 자결하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 등, 성경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깊은 고통에서 환희와 기쁨으로 반전된 이야기가 수 없다.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빛이 비치고,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꽃 피는 봄이 온다.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시간은 우리를 정금처럼 단단하게, 또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며, 또 한 하나님의 각본으로 짜여진 역전의 드라마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역전되었고, 또 역전되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이국진 사모

:: 아름다운 세상 ::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지난 6월 22일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할 수 없었던 집회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자 무엇인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었다. 집회 전날인 21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이른 아침부터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 중이었고, 준비는 아무 문제나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집회 당일이 되고 집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흥분되고 기분 좋은 떨림이 있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계셨다. 집회가 시작되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더 깔았지만 몰려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고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3층

에서 드론을 날려 영상을 찍으니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 핸드볼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에 감동과 감격이 몰려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집회 현장에는 많은 지체들이 남아 함께 봉사에 임했다. 짐을 나르기 위해 오가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기색보다는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봉사에 임했다. 내면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다. 또한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에 동참한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꼈다.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동지요, 가족 아닌가. 다른 봉사자들도 내가 느낀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값진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 할렐루야! 이은성 생도



:: 생명의 말씀 ::

천국 가는 길

어느 부흥강사가 지방에 내려가서 초청한 교회를 찾지 못해 한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할머니에게 전도합니다. “할머니, 오늘 부흥집회에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자 할머니 왈 “이놈아! 니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찌 아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길을 아십니까? 그 길을 알아야 양 떼가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내가 성령의 화신이다, 하나님의 현신이다, 참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초석 목사님 말씀대로 목자가 소경이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은 길이신 예수를 올바르게 가르쳐주시는 물론이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들은 마치 자기를 통해야만 그 길에 이른다며, 자기가 인도하는 길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주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히 이를 경고하십니다. ‘꿈에서 말씀하셨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선

지자들에게 대한 통렬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렘23:16~32, 표준새번역) 가이드를 잘 만나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인 목사를 잘 만나야 천국에 무사히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광주 목사